

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

<용서하고 사랑하라>

10/14(주일) 설교 내용

요한복음 8:1-11

1.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.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.

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이 세상의 법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. 오히려 잘 지킴으로 질서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함입니다.

하나님의 율법도 같은 원리입니다.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한 것이며 또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.

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살아난 경험과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우리 교회 꿈, 예수님의 꿈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옳은 곳으로 이끈 것에 있습니다. 이 꿈이 혹 나의 꿈과 같은 꿈인가요? 이러한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

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특별히 교회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.

내가 걱정하는 VIP가 누구인지 서로 이야기 나누며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가를 서로 나누며 도전이 되면 어떨까요?

혹 아직 VIP를 걱정하지 못한 목원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.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,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

어떻게 내가 죄에서 용서 받았는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합니다.

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의 방법과 나의 용서의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.

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과 나의 사랑의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.

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할지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.